



[금융] 삼성화재 분기매출 4.9조 매출 회복세 06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550.08 (-42.19)	코스닥	833.66 (-32.68)
금리 (미국 3년)	2.900 (-0.028)	환율 (원/달러)	1288.60 (+13.30)(12일)

m-커버스토리

# 반도체·부품 대란에 소비자 '乙'로 전략

## 코로나 전·후 국내车市장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차량 구매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갈증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현대차·기아 등 차량 구매에 최대 1년6개월 이상 소요

일부 수입차 업체서는 구입비용 일시불 결제 불가 업계 “車 반도체 부족사태 2024년 이후까지 계속” 전망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 만행인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대 1년6개월이 소요된다. 자동차 구매정보 플랫폼 겐차의 5월 기준 국산차 출고 시기 분석결과 현대차 아반떼 가솔린, N라인은 9개월을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아반떼 HEV와 그랜저 HEV도 각각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제네시스 G80은 6개월 대기해야 한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5의 경우 각각 12개월을 대기한다. 스타리아 차량은 7~8개월을, 포터 일반 차량은 8~9개월을, 포터 EV는 12개월 이상이 걸린다. 제네시스 GV60, GV70, G70은 각각 12개월 이상, 8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기아도 차량다수가 출고 지연 현상을 겪고 있다. K3는 드라이브와이즈 옵션 선택시 3개월을, K5 LPi는 12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기아의 순수 전기차 EV6는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는 소비자가 웃돈을 주고 차를 구매해야 할 상황이었다. 아이오닉 5 구매를 위해 올해 초 계약한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판매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전기차 계약에서 내연기관으로 바꾸면 신차를 구입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알아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전기차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출고 시기를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최근에는 배정영업을 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 판매 시 소비자가 구입 비용을 일시불 전액 결제 할 수 없도록 해왔다. 차량 가격의 30%를 결제한 뒤 잔금은 12개월 할부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국산 전기차 구매가 어려워 독일 수입차 견적을 받았는데 결제 방식이 황당했다”며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라는 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주요 수입차 업체는 자동차 판매로 연 2%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전용 할부금융상품을 통해서만 20%가 넘는 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전쟁 장기화 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러시아 산 네온과 팔라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 공급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4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증시 연일 최저점... 상장철회 줄이어

코스피 1.63% 하락 2550.08 마감  
美 금리인상, 중국의 코로나 봉쇄 러-우 전쟁 등 증시 리스크 확산  
올 원스토어 등 총 6곳 상장 철회

대의 시장 악재가 이어지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자 상장 절차를 중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양새다. 증시는 연일 연저점을 찍고 있다.

12일 코스피는 42.19포인트(1.63%)나 하락해 2550.08에 장을 마쳤다. 지난 2020년 11월20일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3.77%나 급락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 불

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대외 악재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상장 철회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태림페이퍼와 원스토어가 상장 철회를 공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보로노이, 대명에너지, SK윌더스에 이어 올해에만 6곳의 기업이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표 애플마켓 원스토어는 지난 9~1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양일간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기록을 내자 결국 상장을 철회기로 했다. 특히 원스토어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환 대표가 “어

려운 시장이지만 상장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직접 상장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해 시장의 충격이 컸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수요예측을 진행한 골판지 원지 전문 생산 기업 태림페이퍼도 수요예측 흥행에 참패했다. 태림페이퍼는 2016년 자진 상장 폐지 이후 6년 만에 재상장에 도전했으나, 불안한 증시 상황에 온전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

##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 ⑧ 현대중공업 <4면>



尹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국민의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 소상공인 손실보상 36.4조 등 추경 59조 의결

## 尹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국민 발생 손실 보상, 국가 의무”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일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

부 재정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등 6조1000억원, 고물가 등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

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대통령, 글로벌 코로나정상회의 참석... 첫 다자 정상회의  
▲ 권영세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은 도울 의향 있어” /사진 뉴스1

▲ 민주 ‘3선’ 박완주 제명... 성 비위 사건 발생  
▲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서 ‘반대단체’ 밤새 확성기 고성



▲ 6·1선거 검수완박 국민투표 사실상 불가... 권성동 “시간 촉박” /사진 뉴스1  
▲ 정의 “김성희,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소수자 혐오...해임하라”